
제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1957년9월4일(단기4290년) 상오 15시 13분

의사일정

1. 제14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정부의장및각상임위원장선거
-

부의된안건

1. 제13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1면
 2. 보고사항 2면
 3. 정부의장및각상임위원장선거 4면
-

(15시 13분 개의)

○의장 김진용; 제14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5인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3회임시회제3차 회의록 낭독인 오늘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수길 김규원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1. 제13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전차 회의록낭독

○의장 김진용;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수길의원 김주홍의원 두분
으로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김제윤 의원; 보고사항을 지금 회의 순서로 보아가지고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마디 기왕 말이 났으니 교육감에
게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다행히 문화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석상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의
미에 있어서 이사람이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
리는 바입니다.

남대문에 대해서 얘기안할 도리가 없어서…….

남대문이라는 것은 잘아시다 싶이 이것이 이태조 7년에 송
례문 자리에다 남대문을 건립해 가지고 그후 세종 27년에 이
것이 증축이 되었고 그후 일제때 약간 여기대한 수리를 가한
연후에 전란 두번째의 수복후 여기에 대해가지고 대폭 수리
를 이대통령의 특명으로 세건 토건대표 이윤서씨에 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폭 수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을 경과
하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대들보가 다꾸부러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위 수도서울에 있어가지고 국보의 하
나인 남대문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 되드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바이 올시
다.

이것은 한때 어떤 일간신문을 보건데 교육감에게 이 내용
에 대해가지고 기자질문의 답변에 내용을 잘알고 있으니 방

금 이것을 조사중에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사중에 남대문이면 교육감이 항상 「짚」차를 타고 다니니 거기에 1분이면 갔다 왔다 하는데 조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지 몰라 그러되 이것은 尙今까지 방치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될것이니 국가 재정관계시비 관계등 여러가지를 보아 가지고 손실될 우려성이 적지 아니하니 교육감은 즉시 이것을 「탓취」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바래서 이사람이 보고석상에서 말씀드려둡니다.

○의장 김진용; 문학우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 하루속히 시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마디 고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집행부에서 晝食시간이 12시부터 한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요지음 점심시간이 한시반 내지 두시까지도 점심을 먹으러 가서 자리가 비는 예가 많습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나와 앉아 계시니 곧 시정해 주도록 하고 다음은 지난 37일 내무위원회 한희석씨가 외국 시찰을 하고 돌아올때 오전 11시부터 모국장이 자리를 비고 출영나간일이 있습니다. 처리할 것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구미시찰을 하고 돌아올때 자리를 비고 비행장까지 출영나가는 이런 아부 근성을 곧장 좀 고쳐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받는 고충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없으면 그 다음은 오늘 정부의장 및 각상임분과위원장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주의를 하시겠지만 투표방법 이든지 현실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의장」하느이 있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3. 정부의장및각상임위원장선거

○박수형 의원;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해서 의장 부의장은 의회에서 단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행한다는 것이 5조 1항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행할 것이겠고 만약에 오늘 듣는바에 의하게되면 단일 입후보로 생각되어서 여러분이 난립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일차투표에서 과반수가 미달시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역시 2차에서 과반수 미달되면 제3차 투표에 들어가서는 다수득점자로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적용해야 되고 다음에 감표의원 2명 개표의원 2명해서 4명으로 정하되 이것은 의장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정식동의합니다.

(「동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하느이 있음)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됩니다.

○의장 김진용;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다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개표의원 두분식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하신분이 감표의원을 한분만 민주당 소속

이고 개표의원도 역시 그와같이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감표의원 노승환의원 이원옥의원 개표의원은 최태수의원 최종욱의원 이네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로부터 투표로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이행득; 의원 여러분! 각자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은 동의 내용과 같습니다. 각자 소지한 도장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투표함은 공함이 올시다.

(15시 30분 투표개시)

(15시 50분 투표완료)

○부의장 이행득; 투표는 다끝났습니다. 개표의원 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부터 세요」하는이 있음)

투표개표는 재석의원 47명 투표수 47매 틀림없습니다. 개함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박명준의원이 재석의원 과반수 24표로서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부의장 선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해서뵈세요」하는이 있음)

잠깐 식사하고 하시는것이 어떨까요?

(「그냥해요」하는이 있음)

감표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등단하여 투표함을 들어보임)

투표함은 보신마와같이 공함입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6시 02분 투표개시)

(16시 10분 투표종료)

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47매 틀림 없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복의원 5표 김석근의원 13표 이중구의원 23표 이행득의원 5표 이원옥의원 1표입니다. 이상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미결입니다.

다음 부의장선거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6시 20분 투표개시)

(16시 30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용; 재석의원 47인 투표수 47표 틀림없습니다. 개표결과를 보고합니다.

김석근 18표

이중구 22표

김항복 3표

이행득 4표

두 분 다 반수 미달입니다.

결산에 들어가서 이중구 22표 하고 김석근 18표 이분으로 결선투표합니다. 그러면 이번 투표하는데 대해서는 김석근의원 이중구의원 두 분중에 한분을 써야할 것입니다.

그밖에 한것은 무효입니다.

(16시 40분 투표 개시)

(16시 50분 투표 완료)

(16시 53분 투표함 개함)

재석의원 47명 투표수 47로서 부합됩니다.

개표결과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47명중 이중구의원이 27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내무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조영석 의원; 이제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거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할 시간이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을 보니 다섯시가 가까워왔고 또 의원 동지여러분이 대단히 피로해 있는것같이 보이고 앞으로 9개 분과의 상임분과위원장을 선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피로한 상태로서 계속 하는것보다는 내일 개회를 하고 내일 상임분과위원장을 열시부터 선거를 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내일은 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회가 시작된 1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그대로 계속합시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오늘 시간이 늦드라도 내일기념식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하는이 있음)

감표의원 나오십시오.

(「의장」 하는이 있음)

○노승환 의원; 방금 정부의장 선거는 끝났고 다만 각 상임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지루
하고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서 좀 의사진행상 차이가 있을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개분과라고 하면 대단히 장시간을 기
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해서 가급적이며는 9개분과
를 전부 연기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을 여
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시요」 하는이 있음)

여러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신다면 간략하게 이
것이 회의규칙상 된다 안된다 그러한 규칙의 제한을 받는 것
이 아니니까 우리 의원의 찬의에 의해서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의원이 양해하신다고 하며는 그러한 방도로 하시는 것이
났지 지금 시간이 다섯시인데 9개분과하나 하나를 시작한다
고 하면 앞으로 7시간 가까이를 가져야된다고 나는 생각합니
다.

이러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여러의원이 찬의를 표하신다고
하면 동의해 볼까요?

(「동의하시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개의하겠습니다」 하는이 있음)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이제 노승환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나 의
사진행상 아까 조영석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다수가 찬동했읍
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의를 성립된 것을 의장이 직권으로 오
늘 투표해야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규명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현재 다수의원이 찬동을 해서 연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 현재 투표 용지가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수가 여러가지모로 보아서 오늘 필히 상임분과위원장을 선거한다고 하면 약30분간 휴회를 해가지고 용지가 되어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의원이 여기에 찬동하신다면 동의하신분은 철회하시고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집에서 받아주시든지 철회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개의를하겠습니다」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동의를 성립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옳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한분과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공정하다고 봅니다. 인쇄도 되어있지 않은 조그마한 지면에다가 9개분과를 하는 가운데에 시간도 필요하고 만일에 분과 분과사이에 착오가 있다든지 혹은 글씨에 착오가 있다고하면 여기에 착각을 이끈다고 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별로 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노승환의원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기명하자는데 강을순의원님 의사진행으로 투표용지 준비하는 기간을 30분으로 하자는데 노승환의원님 받아주십니까?
(「받겠습니다」하는이 있음)

또 이갑수의원의 개의는 분과별로 선거하자는데 찬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이 있음)

찬성이 있으면 이갑수의원의 개의성립되었습니다.

○김준식 의원; 이 투표 문제에 있어서 편의상 연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9개분과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난립이 되어서 한 분과에 세사람씩 나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 9 27 스물일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엮다가 적을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분할해서 연기명으로하되 네분과씩 네분과씩 나누어서 할것을 말씀드리고 동의집에서 받아주신다면 좋고 못하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의석에서 ○노승환 의원; 받겠읍니다.)

○김준식 의원; 그러면 동의에 첨부하겠읍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김준식의원이가 9개분과를 한꺼번에 하면 실제로 곤란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수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고하니 용지를 갖다가 좀 넓게 간적을 두어가 지고서 하려는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 대한 것만 먼저 접어서 짓는다고 것이예요. 그것만 뭉어요. 그 분과만.....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가령 내무 재정 무슨 분과가 될것이 아니예요? 순서가..... 그러면 이간격을 갖다가 좀 넓게접는다 말씀이예요.

넓게 잡아가지고 접어서 짓을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투표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과나 네분과다 할것없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버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노승환의원 김준식의원 말씀이 골자는 9개분과위원회를 3분해서 연기명투표하자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의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개의 분과위원장을 역시 분과위원회별로 선

출하자는 개의입니다.

이갑수위원의 개의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그 다음에 동의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노승환위원이 동의에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44명중 개의13 미결되었습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노승환 의원; 여러의원에게 동의한 한사람으로서 방금 여러의원님 말씀하셨고 불초 자신이 말씀했습니다만은 다만 어떠한 문제를 개재하는 것이 아니고 9개 분과위원회를 하나하나씩 마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간단히 편법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번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우에는 아무것도 써있는 것이 아니고 9개분과위원회에 명예가 다 드러있습니다.

각의원이 아까 김준식의원이나 본의원이 말씀한 거기에 첨가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3개분과식 석 장식을 각개인이 가지고서 세번한다고 세번으로 끝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 하나씩 아홉번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려 불초 자신의 추측에 의거한다면 아무래도 약 다섯시간 이상이 지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다수 이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위원의 개의철회함으로서 노승환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느이 있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박수형 의원; 그러면 동의집에서 말씀한바와 같이 3개분과식 놓는데 있어서는 그 순서를 제일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이것이 세번 투표를 하는데 제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제2차로는 사회보건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 산업위원회 이것을 제2차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차로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이렇게 순서를 할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요.」하느이 있음)

그 이유는 의회 운영상으로 보아서 여기에 서울특별시 의회조례를 보게되면 제1에 내무위원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아서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순서대로 해요.」하느이 있음)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십시오.

(「의장」 「의사진행이요」하느이 있음)

○강을순 의원; 본의원이 아까 30분간 조건을 동의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30분간 휴회를 선포를 당연히 의장께서 선언 하셔야 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역시 용지준비로 30분간을 말씀드렸습니다. 30분간에 용지준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0분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 17분 휴회)

(17시 45분 속개)

○부의장 이행득; 재석의원 38인으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원여러분께 투표용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각분과별로 고무인이 찍혀있습니다. 역시 해당 분과위원장 선거를 할 때 여기 투표용지 옆에다가 분과별로 투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할때는 석장을 받아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쓰다가 오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우고 옆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는 내무 재정 문교 이렇게 3분과 위원장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17시 47분 투표개시)

(18시 07분 투표 완료)

○부의장 이행득; 개표의원 나오십시오.

투표용지 47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부터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제윤의원 35표로 내무분과위원장에 당선되었고 다음 재정분과위원장에 대한 호명합니다.

박수형의원 38표로 재정분과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문교 투표결과를 호명하겠습니다. 홍순우의원 32표로 문교분과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 사회 건설 이 세분과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투표개시)

(18시 40분 투표완료)

○부의장 이행득; 개표위원 나오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47매 틀림없습니다. 산업위원회로부터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에 한상기의원이 37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건위원장 선거 득표 결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계표완료)

사회보건위원장에 박승목의원이 38표로 당선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호명 하겠습니다.

(호명개표완료)

이동률의원이 36표로 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음 예산결산 운영 징계자격서 분과를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위원장으로 당선된 분은 다시 투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5분 투표개시)

(19시 00분 투표완료)

○부의장 이행득;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6인 투표수 46표 이상없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주홍의원 25표로 예산위원장에 당선을 선포합니다. 김상흡의원 22표 김재광의원 18표 과반수 미달로 운영분과위원장 양투표를 선포합니다.

최중구의원 27표로 징계자격위원장 당선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재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 15분 투표개시)

(19시 2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재석 47명 투표수 47매 틀림없습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상흡의원 26표로 운영분과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가는 인사를 여쭙겠습니다. 과거 1년동안 불초 외람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직을 차지해 가지고 여러분께 많은 괴롭을 끼쳤고 신진대사나 去舊從新은 생리적으로 처세상으로 보아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君子 明於盛衰之道○ ○乎成敗之數 富乎治亂之世 達乎去就之節이라 이것은 장량이 적송자를 따라가는 ○句이 올시다.

그러면 다행히 이사람이 적송자를 따라가면서 의장직을 보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가서 일많이할 기회를 얻게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이 이말씀으로 간단한 인사를 여쭙고 신임으로 당선되신 박명준의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일동박수)

○부의장 이행득; 새로 당선된 박명준의장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박명준 의원; 우리를 의회에 보내주신 귀빈과 또 시민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행정부 여러분앞에 이 사람이 송구하게도 의장이 되였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마음 무겁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불초 이사람을 의외에도 의장이라는 귀중한 이름을 이사람에게 매겨 주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에 송구한 바가 더욱 큰것이 올시다. 과거에 우리 의회가 탄생한지 이제 퇴임인사를 하신 김진용의원께서 무한한 노력과 滅心으로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에 저희 의회는 탄탄하게 앞으로 걸어갈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초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받는다는 것은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김의장을 도리켜 생각하면 인격으로 보든지 대단히 고상하신 분이시고 또 학식으로 본다면 대단히 박식하시고 또 과거 경력을 볼때에 여러가지 방향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신 이 어른이 딱어논 이 때에 나서서 어떻게 하면 과거를 욱되게 하지않고 더욱 빛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때에 대단히 마음 무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어찌다가 보니까 피선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능한 사람에게 의회에 나와서 의회를 지도하라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사람으로서 생각할때에 또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때에 무능하다고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퇴를 하지않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저 내심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겸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세상 만사가 한사람으로 되지않고 한가지만으로 완전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생활은 역시 단체생활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고견과 협력으로서 저를 적극 편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하는 기대 밑에서 스스로 승인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할일을 생각할때에 어떻게 과거 1년

동안 보다 좀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시민앞에 좀더 나은일을 보여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에 역시 우리들은 머리 무겁게 생각되는 바이고 또 과거의 일이 이만하면 무던했느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대는 변하고 시대는 향상되어 나가니까 우리 의회가 앞으로에 우리의 마음 먹은바는 백「페선트」로 성적을 올리고 성과를 거두어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원 각자가 더마음 가운데에 포부도 가지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다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에는 의장이라고해서 무슨 다를게 없으니까 의원의 의견을 따라하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의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필코 올 1년은 작년보다도 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귀빈 여러분과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앞에 마음가운데에 한가지 절실히 맹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식과 말로만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시행정이 되어나가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될것으로 이자리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역량있는대로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서 여러분앞에 맹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지워진 사명을 완수할려면 먼저 말씀드린바와같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는 바입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진용; 부의장 퇴임인사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작년 9월 5일 역사적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원 여러분의 애호로서 또는 귀중한 한표로 천 박하고 기대한바 왜람되나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장의 자리

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후 여러분의 열성적인 지도편달하에 작년 1년동안 아무사고없이 지나간 것은 불초 이사람의 역량보다도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새로 당선되신 이중구선생은 사회적으로나 명망과 수완이 풍부하신 신임 부의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퇴임인사를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끝이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용; 이중구 신임 부의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세요.

○신임부의장 이중구; 오늘 이자리에 여러의원께서 비재 천박한 본인을 부의장에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보다도 죄송한 말씀을 무어라고 여쭙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의장께서 지식으로 수완이 풍부하신 그 임기로 인해서 본인이 여러분에 지도편달을 잘할는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맡겨주신바에 본의원의 최선에 노력을 다하여 여러선배의원의 기대하는바 양심껏 1년을 지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19시 50분 산회)

폐회식

1. 폐회

1. 국민의례

1. 식사 의장

1. 인사 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19시 55분)

○간사장 신용석;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임시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의장님의 식사말씀이 게시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제14회 임국회의를 폐회하는데 있어 식사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만 365일 의회 의장이라고해서 더욱 초대에 부덕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김진용으로서 여러분께 많은 폐를 끼친것을 대단히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총결산을 하는 이 폐회식에 있어 소감의 일단을 말씀안드릴수 없습니다. 60여년 일반사회 생활에서 특히 과거 1년동안 여러분과 같이 의회에 일이 날마다 있어서 각 과별로 오고 가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일한데 대해서 항간에서는 실적이 없었다는 말도 많았지만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막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외에 한가지 이사람이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점이 있어요. 대저 우리의회에는 애국자도 많고 껍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때 내가 볼때 진실한 애국자와 진실한 애당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실 나혼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에서 사임 인사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실천할 수 없는 일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제일 첫째로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결산하는 이 마당에서 이런말을 하고 싶은 까닭은 없기 때문에 내 소신으로 적절히 느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날까지 1년을 총결산을 하고 다시 의장과 여러 분과위원장들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때 우리11분이 총력량을 기우려서 잘 의회를 운영하신다면 지금까지 결의한 것을 모략하거나 또는 사람을 모략하거나 중상하거나 그런일이 없을줄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여러분께서는 고신한 일을 듣고 모략해서 노력을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의회인으로서…… 우리가 차후로는 그것을 삼가한 다면 신임 의장의 인사말씀과 같이 잘 의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본바로서는 금년 1년 동안은 그런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대단히 잘될줄 생각합니다.

저는 일로부터는 의회에 회의날 이외에는 의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오고 싶은 생각도 안합니다. 이것은 물론 애국자니 떠들고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맡은바 시민과 구민을 위하여 일할 그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총결산하는 이 마당에 이 사람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과거 1년동안을 잘 회원 하셔서 반성하시고 잘 연구하고 실천하셔서 의회운영에 만유감 없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식사의 말씀으로 대하는 바입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시장 고재봉; (부시장대독) 제14회 임시회의를 개최함에 제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우려 오든 회의 정부의 선거와 각분과위원장 선거의 민주주의적으로 잘 결실된데 대하여는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로서 새로운 조직과 포부를 가지시고 새발거름을 내디디게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반드시 성의를 기우려서 1년간 시민의 복지향상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눈부신 활동이 계시리라고 믿어저서 기쁨

을 또한 금할수 없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간략하오나 이상으로서 인사에 말씀을 대합니다.

단기4290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간사장 신용석; 다음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삼창)

이상으로서 제14회 임시회의 폐회식을 끝마치겠습니다.

(20시 15분 폐회)
